

신동엽 문학에 나타난 분단 극복의 상상력 연구

차성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현대시 전공

poetcha@hanmail.net

- I. 신동엽의 유토피아적 열망
 - II. 「새로 열리는 땅」에 나타난 ‘구체적 유토피아’의 삼향
 - III.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으로서의 씨앗
 - IV. ‘낮꿈’으로서의 시 쓰기: 중립화통일론
 - V.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
-

I. 신동엽의 유토피아적 열망

이 글은 1960년 당대의 남북 분단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신동엽이 수행한 문학적 상상력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신동엽¹은 김수영과 함께 참여시의 기수로 호명되며, 동학사상과 아나키즘을 사상적 기반으로 현대 기술문명과 군부독재, 남북분단이라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역사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한 시인이다. 신동엽은 당대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지향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유토피아적 지향은 당대의 현실에 대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²일 수밖에 없다. 신동엽은 1960년대 한국사회의 냉전과 반공의 분위기 속에서 그 너머의 이상적 세계를 상상하는 문학적 응전³을 보이며 특히 분단 상황에 대한 그의 현실 인식은 통일 조국에 대한 ‘유토피아적 지향’⁴

- 1 신동엽은 1930년 8월 18일 충남 부여에서 태어나 전주사범학교를 중퇴하고 단국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59년 장시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대지」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여 등단했고 1963년에 첫 시집 『아사녀』, 1967년에 장편서사시 「금강」을 발표했다. 1966년 6월에 국립극장에서 단막 시극 「그 입술에 패인 그늘」이, 1968년 5월에는 드라마센터에서 오페레타 「석가탑」이 공연되었다. 1969년 4월 7일 향년 40세에 간암으로 타계했다.
- 2 윤지관은 문학이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대한 꿈과 열망을 자기 몫으로 끌어안고 있다는 점에서 유토피아에의 지향을 지니고 있으며 유토피아는 기존 질서의 모습을 재현하고 때로는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가진다고 본다. 윤지관, 『민족현실과 문학비평』(서울: 실천문학사, 1990), 343쪽 참조.
- 3 김경복, 「신동엽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64(2013), 169~205쪽.
- 4 유토피아는 통상적으로 ‘좋지만 그러나 존재하지 않는 불가능 사회’를 일컫는데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토머스 모어가 ‘Utopia’라는 신조어를 만들면서 ‘eutopia’(the good place)와 ‘outopia’(no place)에서 의도적으로 모음을 생략했기 때문이다. Ruth Levitas, *The Concept of Utopia*(New York: Philip Allan, 1990), pp. 2~3; 손철성, 『유토피아, 희망의 원리』(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15쪽에서 재인용. 임철규는 유토피아에 대한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정의를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 그것은 토머스 모어에 의해 묘사된 상상의 섬으로서, 이곳에서 주민들은 완전한 사회·정치·법률 제도를 누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서 전위된 뜻으로 유토피아는 현실세계에서 멀리

으로 나아간다.

고봉준은 신동엽이 한국전쟁 이전에 창작한 20여 편의 시를 분석하면서 ‘부정적인 현실이 극복되고 희망적인 세계가 도래할 것에 대한 믿음’에 관한 작품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그것이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좌익 문인들의 수사(修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채 마찬가지로 내용 또한 의지와 믿음을 앞세운 관념적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신동엽의 시는 한국 전쟁 이후 뚜렷한 변모를 보이면서 1950년대 후반까지 “실존적 층위에서 발화되는 고독과 허무의 감정, 그리고 역사적·현실적 층위에서 발화되는 ‘전쟁’의 참상과 부정적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다란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⁵ 1950년대에 신동엽은 한반도에 벌어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그린 「압록강 이남」,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과 같이 한국전쟁이 가져온 참혹한 현실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작품을 주로 발표했다.

1959년 11월 9일 『조선일보』에 발표된 시 「향(香)아」에서는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도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라며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이라는 유토피아적 시공간을 노래한다. 이는 산문 「시인정신론」에 등장하는 ‘원수성’의 세계와 같은, 인간과 자연이 화합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과거의 유토피아적 시공간과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시는 과거의 충만한 고향에 대한 유토피아적 열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당대의 현실에서 그것을 실현할

떨어진, 상상 속에 존재하는 미지의 국가 또는 지방을 지칭하게 되었다. 둘째 유토피아는 정치·법률·관습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에서 완벽한 이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는 한 편으로는 거의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이상적인 정치기획을 뜻하고 있다.”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파주: 한길사, 2009), 17~18쪽.

- 5 고봉준, 「1960년대 정신사와 신생의 토포스: 4.19혁명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전후 신동엽 시의 변화양상」, 『한국문학논총』 84(2020), 459쪽.

수 있는 어떠한 실천적 행위도 요청하고 있지 못하다. 블로흐⁶는 이와 같은 성격의 유토피아를 ‘추상적 유토피아(abstrakte-Utopie)’라고 명명했다.

블로흐는 『희망의 원리』에서 인류가 고대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상황에 맞춰 억압이 없는 사회를 다양하게 상상해 온 유토피아 사유의 역사를 추적하고 유토피아에 대한 꿈이 인간이 가진 존재론적 본질이라고 보았다.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는 추상적 유토피아와 구체적 유토피아로 구분된다. 블로흐는 (추상적) “유토피아가 소위 추상적 내용을 이상화시키게 되는 까닭은 그것이 아직 미성숙 단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토피아는 대체로 배후에 확실한 주체가 도사리지 않고, 현실 가능성과 거리가 먼 것으로 잘못 이해되”어 왔으며 “앞으로 나아가려는 보다 나은 현실적 경향과 전혀 접촉하지 못한 채, 쉽사리 정도(正道)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한다.⁷ 반면에 구체적 유토피아(konkrete-Utopie)는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는 세계의 전선에 가까이 도사린 어떤 객관적, 현실적 실제 삶의 척도”로서 주어지는 것이다.⁸

6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1885~1977)는 1885년 7월 8일 남부 독일의 루드비히스하펜에서 태어나 유대교의 종말론과 맑스, 헤겔이 융합된 혁명적 낭만주의를 사상의 기초로 1918년 최초의 저서 『유토피아의 정신』을 펴냈다. 나치를 피해 유럽과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동독의 라이프치히대학에 64세 나이로 교수 임용되어 1957년까지 근무했다. 1954~1959년 불후의 대작인 『희망의 원리』 총 3권을 출간했다. 1961년 서독 방문 중 베를린 장벽 설치 소식을 듣고 동독으로의 귀국을 포기, 튀빙겐대학 객원교수로 활동하다가 1977년 8월 4일 심장 쇠약으로 타계했다.

7 에른스트 블로흐(저), 박설호(역), 『희망의 원리 1』(서울: 열린책들, 2004a), 293쪽. 293쪽.

8 에른스트 블로흐(저), 박설호(역), 『희망의 원리 2』(서울: 열린책들, 2004b), 293쪽, 417쪽. “구체적 유토피아는 ‘아직-의식되지-않은 것’으로서 ‘아직-이루어지지-않은 것’을 현실적 경향성의 ‘전선’에서 ‘의식-인식’하는 것이다. ‘의식-인식’은 미래의 구체적 대상과 존재를 선취하는 방식이다. … ‘의식-인식’은 미래로 향하는 관점에서 선취되는 구체적인 미래적 대상에 대한 ‘이론과 실천’이다. 즉 ‘의식-인식’은 철저한 현실적 경향성의 분석을 기초로 현재가 나아갈 방향과 지점을 예상하는 가운데 구체적 유토피아를 선취하고, 동시에 실천해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재광,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에 관한 연구: 『희망의 원리』 2부 <정초적 논의: 선취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블로흐는 구체적 유토피아의 예로 마르크스주의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가진 두 가지 기능을 한류(Kältestrom)와 난류(Wärmestrom)로 구분한다. ‘한류’는 “모든 역사적, 상황적 영역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석하는 작업은 한편으로는 제반 이데올로기의 참모습을 밝히는 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형이상학적 가상의 허구를 직시하는 일”이라고 보고, ‘난류’에 대해서는 “해방을 꾀하려는 의향이라든가 유물론적이자 인간적인(바꾸어 말해 인간적이자 유물론적인) 현실적 경향성”이며 “어떠한 <탈신비화>에도 종속되지 않는 긍정적인 <역동적 무엇>과 유일하게 관련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즉 ‘한류’가 현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통해 극복 가능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면 ‘난류’는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주체적인 의지와 열망을 의미한다.⁹

블로흐의 ‘한류’와 ‘난류’에 빗대어 신동엽 문학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신동엽은 1950년대에 유토피아적 열망(‘난류’)으로 충만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사의식과 이론적 토대(‘한류’)가 부재했다. 그러나 1960년대 동학과 아나키즘의 사상적 전유를 통해 산문 「시인정신론」에서의 ‘원수성-차수성-귀수성’이라는 역사관과 ‘전경인’ 개념을 획득했으며 결정적으로 4·19혁명 이후 분단 극복의 평화통일이라는 구체적 유토피아의 전망을 확보했다는 가설이다.

(2010), 60쪽.

- 9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2024b), 425~429쪽 참조. 블로흐는 추상적 유토피아와 구체적 유토피아를 설명하면서 ‘신발의 틀에다 납을 부어 넣는다.’라는 낯선 비유를 사용한다. 박설호의 주에 따르면, 유럽인들은 12월 31일에 납을 녹여 형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은 그때 드러나는 형체가 어떤 간절한 바람이나 미래의 삶을 예시해 준다고 믿었다. 마르크스주의 이전의 추상적 유토피아가 가진 문제는 유토피아적 열망으로 주어진 행로를 이탈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 사고를 담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신발의 틀)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2024a), 426쪽. 즉, 블로흐는 마르크스주의가 기존의 추상적 유토피아에는 부재했던,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냉철한 이론적 토대(‘한류’)를 제시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신동엽의 유토피아적 열망이 한국전쟁과 4·19혁명이라는 역사적 분기점을 통과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변화해 갔는지를 블로흐의 이론을 근거로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 분단을 타개하고 중립화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문학적 상상력의 근저(根底)에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민족 공동체를 꿈꾸고자 했던 신동엽의 유토피아적 열망이 자리 잡고 있다. 신동엽 문학이 1950년대 추상적 유토피아를 넘어서 1960년대 구체적인 유토피아가 어떻게 출현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논의 과정을 따르기로 한다. 1950년대 추상적 유토피아가 발현되는 시기의 작품들을 일별한 후 1960년대 전후를 시작으로 구체적인 유토피아의 단서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이미지와 키워드를 대표하는 텍스트를 선정해서 분석한다. I장에서는 신동엽의 유토피아적 열망과 에른스트 블로흐의 유토피아 사주의 접점을 개괄한다. II장에서는 1959년 11월 2일에 발표된 시 「새로 열리는 땅」에 나타난 ‘정전지구’라는 시어에 주목해서 해당 텍스트를 분단 극복의 상상력을 드러내는 최초 모델이라는 것을 분석한다.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에서는 ‘구체적 유토피아’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공간, 시간, 주체를 언급하는데 해당 텍스트에 이와 각각 연결되는 시적 이미지로 ‘정전지구’, ‘새벽’, ‘너의 눈동자’를 제시한다. II장의 논의를 통해 신동엽 문학이 비무장지대인 ‘정전지구’를 구체적 유토피아의 핵심 공간으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II장에서는 신동엽의 시와 시극, 산문에 자주 등장하는 ‘씨앗’의 의미를 살펴본다. 이 ‘씨앗’은 삶과 죽음의 양태를 포함해 아직 미래가 결정되지 않은, 가능성을 담지한 중립의 상태로서 블로흐가 제시한, 구체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의 위상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한다. IV장에서는 신동엽 문학에 나타난 분단 극복의 상상력이 최종적으로는 중립화 통일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블로흐의 ‘낮꿈’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막연한 소망 충족에 가까운 ‘밤꿈’이 추상적 유토피아에 준한

다면 ‘낯꿈’은 유토피아를 현실 속에 실제 구현하려는 실천적인 의지와 행위가 동반된 구체적 유토피아에 속한다. 시 「산문시1」,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산문 「전통 정신 속으로 결속하라: 남북의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위한 준비회의를 제의하며」 등에서 신동엽이 현실 정치적 감각에서 실질적인 중립화 통일론을 지지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V장에서는 신동엽 문학에서 남북 분단의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에 이르고자 하는 유토피아적 열망에는 최종적으로 혁명을 획득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선취된 것으로 보는 급진적인 지점이 있음을 논증한다. 즉, 역사적 과거 속에서 미완의 혁명인 동학농민운동, 3·1만세운동, 4·19혁명 다음 단계에 혁명의 완성으로서 남북 평화통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래할 혁명의 완수는 이미 역사 속에서 그 실패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다. 블로흐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유토피아에 대한 선취된 의식이 실제 역사 속에서 혁명을 완수한다. 이를 통해서 신동엽 문학이 그의 구체적 유토피아를 향한 강력한 의지와 실천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II. 「새로 열리는 땅」에 나타난 ‘구체적 유토피아’의 삼항

추상적 유토피아는 과거의 이상향을 노래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잠시 치유하는 일종의 도피적 형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에 도리어 현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블로흐는 ‘추상적 유토피아’가 가진 퇴행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품은 유토피아적 열망을 긍정하면서 ‘구체적 유토피아’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신동엽에게는 그 ‘구체적 유토피아’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땅이 ‘정전지구’로 나타난다.

하루 해/ 너의 손목 싸쥐면/ 고드름은 운하 못 미쳐/ 녹아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꺾 건지다보면/ 밀둥 긴 폭포처럼/ 역사는 철철 흘러가버린다.// ①피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영(嶺) 넘으면/ ②정전지구(停戰地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 세우고/ 치솟은 삼림 거니노라면/ 초연(硝煙) 걷힌 발두덕 가/ ③새벽 열려라

-「새로 열리는 땅」 전문¹⁰

「새로 열리는 땅」은 이후 1963년 3월에 첫 시집 『아사녀』가 출간되면서 제목이 ‘완충지대’로 바뀌고 내용이 일부분 개작되었다. 띄어쓰기와 구두점의 수정을 제외한 의미론적인 변화는 1연의 “고드름은 운하 못 미쳐”에서 “고드름은 운하 이천서”로, 3연의 “정전지구(停戰地區)”가 “완충지대”로, 4연의 “새벽 열려라”가 “풍장 올려라.”로 바뀐 데에 있다. 「새로 열리는 땅」은 「향(香)아」와 비슷한 시기에 발표되었지만 그전의 시들과는 다르게 ‘정전지구’라는, 제목 그대로 ‘새로 열리는 땅’을 제시했다는 것이 특이한 지점이다. 한국 전쟁 이후 남북은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휴전선을 두고 분단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 휴전선의 비무장지대(非武裝地帶, demilitarized zone), 즉 DMZ를 ‘새로 열리는 땅’으로 바라본 것이다. 비무장지대는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해서 어떠한 군사적 행동이 용인되지 않는 지역이다. 남한과 북한 측 영토에서 각각 2km로 총 4km 안에는 군대 주둔과 무기 반입이 불가하고 군사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철거해야 한다. 이 시의 ‘정전지구’는 바

10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세계일보》, 1959년 11월 2일; 이 글은 신동엽(저), 강형철·김운태(편), 『신동엽 시전집』(파주: 창비, 2013); 신동엽(저), 강형철·김운태(편), 『신동엽 산문전집』(파주: 창비, 2019)을 주 텍스트로 한다. 이하 시 인용의 경우 「제목」, 산문 인용의 경우 「산문 「제목」」으로 표기한다. 번호와 밑줄은 인용자.

로 ‘비무장지대’를 연상시킨다.¹¹

‘밭두덕’은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뜻하는 ‘밭둑’의 사투리이다. ‘밭두덕’은 남한 밭과 북한 밭을 나누어 둑을 쌓았다는 의미로, 남북한의 분단 상황을 암시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 ‘밭두덕’ 부근은 군사행동이 금지되고 무기를 반입할 수 없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화약의 연기(硝煙)가 걷힌 곳이기도 하다. 비무장지대는 정전 이후 오랫동안 사람이 출입하지 않은 곳이기에 환경오염도 없고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寶庫)로 알려져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임시로 설정해 놓은 비무장지대는 일견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지만 시적 상상력을 통해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를 세울 수 있고 “치솟은 삼림”이 있어 자연의 생명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결국은 그 ‘정전지구’는 새로운 생명인 곡식의 이삭을 거둘 수 있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 젖은 안마당”으로 화(化)한 것이다. 현재는 “고드름”이 얼어있는 냉전의 상태이지만 곧 “녹아버리고” 멈춘 것처럼 보인 “역사”는 다시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새벽”이 열리기 위해서는 선행해야 할 조건이 있다. 3연에서 “피 다순 쪽지 잡고/너의 눈동자

11 고봉준은 “1960년대 신동엽의 시에서 이상적 세계는 대개 토포스(topos)의 관점에서 상상되고 「완충지대」의 “공간적 배경, 즉 장소는 오늘날의 비무장지대, 즉 ‘완충지대’”로 보고 있다. 고봉준, 앞의 논문(2020), 471쪽. 이어서 4·19 이후 신동엽 시에 유토피아로 볼 수 있는 이상적 세계의 이름들이 호명된다는 점에 주목해 이는 1960년대 ‘중립화통일론’과 당대의 정신사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한다. 현실 정치적 변화에 따른 이상적 세계에 대한 시기별 명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59년 ‘정전지구’(「새로 열리는 땅」) → 1960년 ‘4·19 민주화 항쟁’ → 1963년 ‘완충지대’(「완충지대」), ‘완충’(「주린 땅의 지도 원리」) → 1964년 ‘중립’(「껍데기는 가라」) → 1964년 ‘6·3한일회담 반대운동’을 통해 ‘중립화통일론’ 부각 → 1968년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비무장지대(‘정전지구’)라는 군사적 공간을 시적 상상을 통해 이상적 공간인 ‘완충지대’로 전유하고 있다는 그의 논의는 이 논문에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해 주었다.

영(嶺) 넘으면”이라는 시구는 이를 정확히 보여준다. 현 상황은 “고드름”이 열 정도로 추운 현실이지만 ‘너’는 이를 참아내면서 피가 따듯한 어깻죽지를 감싸고 산마루 너머를 바라보아야 한다. ‘너’의 몸은 참혹한 현실에 있지만 “눈동자”는 이 현실 너머에 가려진 ‘새로 열리는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부정적 장소로 여겨지던 비무장지대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 시는 ‘정전지구’라는 장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그곳은 앞으로 ‘새로 열리는 땅’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동반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너’의 바라봄이라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시의 ②‘정전지구’로 표기된 ‘비무장지대’란 장소(생명이 움트는 자연생태계가 보존된 장소)와 ③도래할 “새벽”이라는 시간적 개념, 그리고 이 ①‘새벽’(희망)이 도래할 ‘정전지구’를 바라보는 ‘너’의 눈동자가 의미하는 주체의 실천적 행위는 신동엽 문학에서 구체적 유토피아를 가능하게 하는 트라이앵글의 세 꼭지이다. 다시 말해 「새로 열리는 땅」은 신동엽 문학이 가진 분단 극복의 유토피아적 상상력이 발현되는 최초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렇지요, 좁기 때문이에요. 높아만 지세요, 온 누리 보일 거예요./ 잡답(雜踏)

12 김희정은 시 「새로 열리는 땅」을 분석하면서 이 시가 ‘정전지구’를 “도래할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즉 거대한 역사적 변환을 개시할 ‘사건’이 잠재되어 있는 문제적 장소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한반도의 버려진 땅을 생명이 약동하는 대지로 전환시키는 상상적 노동”은 곧 “‘정전지구’의 버려진 땅을 전쟁의 부산물로 보는 상태/국가의 관점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자, 폭압적인 상황의 지속에 복무하는 전쟁의 진정한 종식을 도모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해방적 사유의 실행”인 것이다(김희정,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진리 절차 연구: 알랭 바디우의 메타정치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9), 46~51쪽 참조). 이 논의는 바디우의 ‘사건’과 ‘공백’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 「새로 열리는 땅」을 블로흐의 이론을 통해 분단 극복을 위한 구체적 유토피아의 상상력이 발현되는 최초 모델로 본 이 글의 분석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속 있으면 보이는 건 그것뿐이에요. 하늘 푸르려도 넋출 뿌리 속 헤어나기란 두 눈 먼 개미처럼 어려운 일일 거예요.// 보세요. 이마끼리 맞부딪다 죽어가는 거야요. 여름날 홍수 쓸려 죄 없는 백성들은 발버둥쳐 갔어요. 높아만 보세요, 온 역사 보일 거예요. 이 빠진 고목 몇그루 거미집 쳐 있을 거구요./ 하면 당신 살던 고장은 지저분한 잡초밭, 아랫도리 붙어살던 쓸쓸한 그늘밭이었음을 눈뜰 거예요.// 그렇지요, 좀만 더 높아보세요. 쏟아지는 햇빛 검붉은 하늘밭 부딪칠 거예요. 하면 ①영(嶺) 너머 들길 보세요. ②전혀 잊혀진 그쪽 황무지에서 ④노래치며 돌아나고 있을 싹수 좋은 둥구나무 새끼들을 발견할 거예요.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세요. 늦지 않아요. 아직 ③이슬 열린 새벽 별판이에요.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세요」 전문¹³

현실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복잡함 속에서 서로 이마끼리 맞부딪다 죽어가고 “지저분한 잡초밭”에 지나지 않는다. 그 속에서 간혀 있으면 “눈 먼 개미처럼” 헤어 나올 수 없다. 시적 화자는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시선을 높여 볼 것을 요청한다. 시야가 멀리 트였을 때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나온 역사를 새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더 높이 바라보면 “영(嶺) 너머 들길”이 나오고 “전혀 잊혀진 그쪽 황무지에서 노래치며 돌아나고 있을 싹수 좋은 둥구나무 새끼들을 발견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선을 높이 트이면 “이 빠진 고목 몇그루 거미집 쳐 있”는 참혹한 현실 너머, 미래의 유토피아적 비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2인칭 청유형의 간곡한 화법으로 아직 늦지 않았으니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라고 독촉하는 것이다. 이 시는 「새로 열리는 땅」의 삼항 구조와 마찬가지로 “① 영(嶺) 너머 들길”을 보라는 주체의 실천적 행위를 촉구하면서 ② “전혀 잊혀진 그쪽 황무지”라는 공간

13 신동엽,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세요」, 《서울일일신문》, 1961년 4월 11일.

적 개념과 ③ “아직 이슬 열린 새벽”이라는 시간적 개념이 제시되어 있다. 즉 “전혀 잊혀진 그쪽 황무지”는 비무장지대로 읽는 것이 설득력 있다. 여기에 추가된 항은 ④ “노래치며 돌아나고 있을 짝수 좋은 동구나무 새끼들”이다. “동구나무”는 크고 오래된 정자나무, 즉 마을 어귀에 아주 크게 자라서 사람들이 밑에서 쉴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를 의미한다. ‘동구나무’는 전통적으로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마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무로 마을의 운명과 함께하면서 미래에 생길 고통을 계시하거나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 왔다. 따라서 “동구나무 새끼들”은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자 표지 자체로 볼 수 있다. ‘동구나무’는 비무장지대의 생명력을 암시하는 신동엽만의 시적 상징인 것이다.

뿌리 늘인/ 나는 동구나무.// 남쪽 산 북쪽 고을/ 빨아들여서/ 좌정한/ 힘겨운
나는 동구나무/ 다리 뻗은 밑으로/ 흰 길¹⁴이 나고/ 동쪽 마을 서쪽 도시/ 등 갈
린 전지(戰地)// 바위고 무쇠고/ 투구고 증오고/ 빨아들여 한술밥/ 수액(樹液) 만
드는/ 나는 동구나무

-「동구나무」 전문¹⁵

14 신동엽은 ‘석가탑’ 설화를 기반으로 오페레타 「석가탑」을 썼으며 이 작품은 1968년 5월 백병동의 작곡으로 드라마센터에서 상연되었다. 신동엽은 현진건의 장편역사소설인 『무영탑』을 읽고 레퍼런스로 활용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대성은 신동엽이 「석가탑」의 서사를 현진건의 『무영탑』에서 차용했으며 특히, 『무영탑』의 어떤 부분을 잘라 내어 배경에 비해 구별되는 이미지를 추출하고, 서사의 의미체계로 환원되지 않은 영역을 개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성, 「신동엽의 〈석가탑〉과 현진건의 『무영탑』 비교 연구: ‘비어 있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77(2019), 59~83쪽].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아주 친절스럽게 아사녀에게 언덕빼기 한복판으로 뚫릴 흰 길을 가리켜 보였다.” 여기서 ‘흰 길’은 희망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시 「동구나무」에서도 이와 유사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현진건의 소설 『무영탑』이 신동엽의 오페레타 「석가탑」뿐만 아니라 시 작품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다.

15 신동엽, 「동구나무」, 『신동엽전집』(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5).

이 시는 화자 자신을 “남쪽 산 북쪽 고을/ 빨아들여서/ 좌정한/ 힘겨운 나는 둥구나무”라면서, 스스로를 직접 “둥구나무”로 지칭한다. 그 “둥구나무”의 “다리 뺏은 밑으로/ 흰 길”이 생기는데 그 길은 “동쪽 마을”과 “서쪽 도시”를 이어지면서 “둥구나무”가 있는 장소를 “등 갈린 전지(戰地)” 즉 서로 등을 대고 갈라진 전쟁터인 비무장지대로 만들게 된다. ‘나’, 둥구나무가 하는 일은 이 장소에서 전쟁을 연상시키는 연료들(“바위”, “무쇠”, “투구”, “증오”)을 다 빨아들여 생명의 액체인 “수액(樹液)”으로 만드는 것이다. 시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세요」의 ‘둥구나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나라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둥구나무’라는 시어는 산문 「시인정신론」에서 원수성-차수성-귀수성의 역사관을 설명할 때 “인간의 천태만상한 성과와 역사를 한 몸에 시현하고 있는 거대한 둥구나무, 인류수(人類樹)”라는 비유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동엽은 한국전쟁 이후 구체적 유토피아의 전망을 확보하지 못한 답보 상태에 머물지만 시 「새로 열리는 땅」에서 ‘정전지구’라는 장소, ‘새벽’이라는 미래의 시간, ‘너의 눈동자’라는 주체의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이는 블로흐가 ‘구체적 유토피아’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언급한 공간, 시간, 주체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블로흐의 ‘구체적 유토피아’에 대응되는, 당대 분단의 현실에 기반해 문학적 상상력으로 변주한 신동엽 식 판본으로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후 신동엽 문학에서 ‘정전지구’라는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한 유토피아 전망은 4·19혁명을 거치면서 점차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Ⅲ.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으로서의 씨앗

신동엽의 시에는 씨앗을 뿌리고 밭을 가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씨앗을

심고 그것이 썩어 발아하여 생명이 탄생하는 생태학적 상상력은 새로운 나라의 건설에 대한 비유로 사용된다. “조국아, 우리는 꽃 피는 남북평야에서/ 주립 참으며 말없이/ 발을 갈고 있지 않은가.”(「조국」). “갑자기 보리씨가 뿌리고 싶어졌다.// … 조국아 그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는 여기 천연히 발 갈고 있지 아니한가.”(「서울」). “수운이 말하기를,/ 한반도에서는/ 세계의 밑알이 썩었느니라.”(「수운(水雲)이 말하기를」). 씨앗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씨앗이고 또 그것을 심어야 할 장소의 문제와 키우고 가꾸는 사람은 누구인지와 같은 주체의 문제가 발생한다. 씨앗을 둘러싼 일련의 행위들이 씨앗 자체가 담지하고 있는 미래의 시간을 결정한다. 신동엽은 ‘씨앗’이란 비유와 함께 씨앗을 심고 발을 일구는 ‘전경인’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땅에 누워 있는 씨앗의 마음은 원수성 세계이다. 무성한 가지 끝마다 열린 잎의 세계는 차수성의 세계이고 열매 여물어 땅에 쏟아져 돌아오는 씨앗의 마음은 귀수성의 세계이다. … 잠시, 인간의 천태만상한 성과와 역사를 한 몸에 시현하고 있는 거대한 동구나무, 인류수(人類樹)를 그려보자. …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토실히 여물어 스스로 땅에 쏟아져 돌아올 것이다. 그들 인류수도 그 이상 지엽(枝葉)을 뺄 수 없을 곳까지 이르러 열매와 열매를 두루 뭉쳐가지고 말없이 땅에 쏟아져 돌아올 것이다./그 차수성 세계 속의 문명수 위에서 귀수성 세계의 대지에도 쏟아져 돌아가야 할 씨앗이란 그러면 어떠한 것 이어야 할 것인가. … 사실 전경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전경인적으로 체계를 인식하려는 전경인이란 우리 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우리들은 백만인을 주워 모아야 한 사람의 전경인적으로 세계를 표현하며 전경인적 실천생활을 대지와 태양 아래서 버젓이 영위하는 전경인, 발 갈고 길쌈하고 아들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양의 발언, 세계의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 온건한 대지의 향수적 귀의, 이러한 실천생활의 통일을 조화적으로 이루었던 완전한 의미

에서의 전경인이 있었다면 그는 바로 귀수성 세계 속의 인간, 아울러 원수성 세계 속의 체험과 접쳐지는 인간이었으리라. … 철학, 과학, 종교, 예술, 정치, 농사 등 현대에 와서 극분업화된 이러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인식을 전체적으로 한 몸에 구현한 하나의 생명이 있어, 그 생명으로 털어놓는 정신 어린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가히 우리 시대 최고의 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이라 인간의 원초적, 귀수성적 바로 그것이다. … 그는 인간의 모든 원초적 가능성과 귀수적 가능성을 한 몸에 지닌 전경인임으로 해서 고도에 외로이 흘러 떨어져 살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문명기구 속의 부속품들처럼 곤경에 빠지진 않을 것이다./하여 시인은 선지자여야 하며 우주지인이여야 하며 인류 발언의 선창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백화만곡의 흐드러지게 쏟아져 썩는 자리에서 유구하고 찬란한 내일의 꽃은 피어날 것이다./전경인의 출현을 세기는 다만 대기하고 있다. 암흑, 절망, 심연을 외치고 있는 현대의 인류는 전경인 정신의 체득에 의해서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인류수 나뭇가지 위에 피어난 못 나뭇잎들을 한 씨알로 모아가시고 우리들은 땅으로 쏟아져 돌아가야 할 이른 가을철의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대지 위에 다시 전경인의 모습은 돌아와 있을 것이고 인류 정신의 창문을 우주 밖으로 열어두는 서사시는 인종의 가을철에 의하여 결실되어 남겨질 것이며 그 정신은 몇만년 다음 겨울의 대지 위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바람과 같이 우주지(宇宙知)의 정신, 이(理)의 정신, 물성(物性)의 정신으로서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그리하여 그것은 곧 귀수성 세계 속의 씨알이 될 것이다.

-산문 「시인정신론」 부분¹⁶

신동엽은 부정한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인간상으로 ‘전경인’을 제시한다.

16 신동엽, 「시인정신론」, 《자유문학》 1961년 2월호.

“사실 전경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전경인적으로 체계를 인식하려는 전경인이란 우리 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말처럼, ‘전경인’은 지금 시대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신동엽은 “인간의 천태만상한 성과와 역사를 한 몸에 시현하고 있는 거대한 둥구나무, 인류수(人類樹)”라는 유기체적 비유를 통해 ‘전경인’을 설명한다. 그는 타락한 현재의 기술 문명 시대를 ‘차수성’의 세계로 보고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문명 이전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동일성의 세계인 ‘원수성’의 세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차수성’의 세계 다음에 위치해야 할 것은 생명력으로 충만한 ‘원수성’의 세계와 같은 ‘귀수성’의 세계인 것이다. ‘원수성’에서 ‘차수성’으로, ‘차수성’에서 ‘귀수성’으로 이어지는 그의 역사관에서 ‘전경인’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다. ‘전경인(全耕人)’은 문자적 의미로 ‘온전히 밭을 가는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모순으로 가득한 ‘차수성’의 세계를 극복하고 ‘귀수성’의 세계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을 지닌 자이다. ‘전경인’은 아무런 반성이 없이 시대에 복무하는, 문명의 “맹목 기능자”가 아니라 인류의 풍성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서 “밭 갈고 길쌈하고 아들딸 낳고, 육체의 중량에 합당한 양의 발언, 세계의 철인적·시인적·종합적 인식, 온전한 대지에의 향수적 귀의, 이러한 실천생활의 통일을 조화적으로 이루”며 “철학, 과학, 종교, 예술, 정치, 농사 등 현대에 와서 극분업화 된 이러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인식을 전체적으로 한 몸에 구현한 하나의 생명”이어야 한다. 전경인은 “귀수성 세계 속의 씨알”, 즉 “차수성 세계 속의 문명수 위에서 귀수성 세계의 대지로 쏟아져 돌아가야 할 씨알”인 것이다.

신동엽은 ‘귀수성’의 세계가 도래하기 위해서는 “땅에 누워 있는 씨알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때 ‘차수성’의 땅에 누워서 ‘귀수성’을 꿈꾸는 ‘씨알’은 블로흐가 말한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Ontologie des Noch-

Seins)’의 지위를 갖는다.¹⁷ 블로흐는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존재의 과정에 대한 비유로 씨앗을 예로 든다. ‘씨앗’은 아직 무엇을 틔울지 결정된 상태가 아니다.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다. 생명도 아니고 죽음도 아닌, 가능성의 점으로서 그것의 존재는 자신의 몸을 뚫고 나오는 발아의 단계를 거쳐 비로소 한 생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 한 생명이 “거대한 둥구나무, 인류수”라는 무수한 생명이 깃들 수 있는 처소가 된다.¹⁸ <아직 없음>은 ‘없음’이라는 부정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아직’이라는 유토피아적 실현의 가능성을 포함한다. 이 긴장 상태가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조화된 희망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는 유토피아의 절멸인 파국을 의미하는 <없는 것>과 유토피아의 최종적 승인인 <모든 것>에 이르게 되는 모든 가능성의 점은 <아직 없음>에 주어지는 것이다.¹⁹ 신동엽은

17 이를 설명하는 챕터의 소제목인 ‘근원 속의 <없음>, 역사 속의 <아직 없음>, 마지막의 <없는 것> 혹은 <모든 것>’은 블로흐의 존재론적 기본 개념들을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존재의 과정과 변화에 맞춰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없음das Nicht>은 스스로의 상태에 그대로 머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의 강렬한, 결국 <관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근원 der interessante Ursprung>, 다시 말해 실제 사실과 결부되어 있는 실현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나아가 <아직 없음das Noch-Nicht>은 물질적 과정 속의 경향을 특징짓는데, 스스로 과정으로 화하여 그 내용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노력하는 근원이다. 이에 반해 <없는 것 das Nichts>과 <모든 것das Alles>은 이러한 경향의 내부에 도사린 <잠재성>으로 규정될 수 있는데, 제각기 부정적 긍정적 요소로서 물질적 과정의 가장 앞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성은 다시금 오직 강렬한 근원의 내용과 관계를 맺는다. 그것은 굶주림 속에서 의도했던 욕망의 어떤 충족 상태를, 이러한 관심사의 성취된 만족 상태와 연결된다”[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2004b), 631~632쪽]. 블로흐의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질 개념과 헤겔의 변증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이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의 어둠’과 ‘없음’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18 신동엽의 산문 「시인정신론」에 나오는 ‘둥구나무’는 그의 다른 시 「둥구나무」에서 유사한 이미지와 의미로 사용된다.

19 “결실을 맺으려는 씨앗의 탐험 속에는 모든 다양한 충만한 특성이 내재하고 있”으며 “언제나 계속하여 가능한 새로움은 아직 찾지 못한 하나의 무엇에 대한 지속적인 결핍에서 출발”한다고 보며 이 “<없음>은 자신의 이러한 지속적인 행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어진 현실에

“전경인의 출현을 세기는 다만 대기하고 있다”면서 “암흑, 절망, 심연을 외치고 있는 현대의 인류는 전경인 정신의 체득에 의해서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그의 「시인정신론」에서 ‘전경인’과 ‘씨앗’은 유토피아를 향한 혁명의 출발점인 ‘아직-아닌 존재의 존재론’을 지향한다.

신동엽 문학에서 ‘씨앗’의 이미지는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씨앗’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심길 장소가 중요하다. ‘씨앗’을 품고 기다리는 대지(大地)의 시간이 필요하다. 신동엽은 구체적 유토피아를 실현시키기 위한 현실적/이론적 토대의 강화로 나아가는 것이다. 「시인정신론」에 기술한 ‘원수성’-‘차수성’-‘귀수성’이라는 역사관 속에서 제시된 ‘전경인’이 ‘씨앗’이란 사물에 비유한 것을 주목해보면, 도래할 ‘귀수성’ 곧 유토피아는 시간적 개념이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씨앗’이 심겨질 대지를 물색할 때, 유토피아는 장소적 개념도 동반하게 된다. 이 ‘씨앗’이 심겨질 장소는 바로 ‘중립 지대’(비무장지대)이다.

남 우린 중간지대에 둘 다 떠 있소. 지금은 떠 있소.(28면) ... / 여 ... 곁데기끼리의 먹살잡이가 끝나지 않는 한 아무 쪽에서도 살고 싶지 않아요. 전 공동우물 바닥에 가서 살겠어요..... 이 산속에서 살겠어요./ 남 우리에겐, 그런 선택권이, 지금, 없어, 이 답답한 반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여 곁데기는, 곧, 가요. 곁데기는 곁데기끼리, 곁데기만 스치고, 병신스럽게, 춤추며 흘러가요, ③기다리면 돼요, 땅속 깊이, 지하 백 미터 깊이에 우리의 씨를 묻어두면, 이 난장판은 금세 흘

서는 어차피 <아직 없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발생사적으로 고찰할 때 <아직 없음>으로 출현한다. <없음>은 <아직 없음>으로서 이미 이루어진 무엇을 지나치고, 이를 뛰어넘는다. 충족을 위한 굶주림은 항상 다시 출발하는, 이루어지지 않은 세계의 전선에서 거대한 생산력으로 작용한다. 그리하여 <과정의 아직 없음>으로서의 <없음>은 유토피아를 모든 객체 속의 겨우 단편적 본질, 즉 미완성의 현실적 대상으로 화하게 한다.”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2004b), 634쪽.

러가요.(31쪽) … / 남 자아. (하며 간절한 몸짓으로 여에게 다가간다. 여 역시 절름거리며 다가선다. 두 사람 감격하며 말없이 포옹) 벗어날 수 없을까. 이 현실, 저 꽃소리, 저 땀의 질주./ 여 머리 위로 지나가게 버려주세요. 지나가요. 곧 지나가요. 이 산천을 다 불살라도 남은 것은 있어요. 오늘 밤부터 그곳에 가서 지하 오십미터의 굴을 파요./ 남 어디?/ 여 그 ②동굴에 가면 열평짜리 완충지대는 확보돼요. 그리고 깊이 오십미터의 지심을 파요. 죽어도, 이 대지의 깊은 속에 내려앉아 죽으면, 이 강산의 밑거름이 돼요./ 남 그럴 거야. 이 지구의 표면. 이 꺾데기 위에서 죽으면 강물에 쓸려 바다로 흘러가버리고 말 거야./ 여 ①우릴 십어요. 깊은 땅속에, 안창에 (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빨리 가요. 선생님의 모든 역사 다아가지고 싶어요.(40-41쪽)

- 신동엽,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 부분²⁰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은 치열한 전쟁이 한차례 지나간 산중 계곡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상황이 일부 묘사되고 특정 시대를 지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남’과 ‘여’의 대립구도와 미제, 쏜제, 전투기, 대포와 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한국전쟁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적대적 관계였던 ‘남’과 ‘여’가 부상을 당한 몸으로 “중간지대”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다가 사랑의 감정을 갖게 된다. 전쟁에 환멸을 느끼고 함께 동굴로 피신하지만 결국 전투기의 공습으로 죽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인용 부분에서 ‘여’는 ‘남’에게 “꺾데기끼리의 먹살잡이”(전쟁)를 피해 “공동우물 바닥”에 가서 살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곳에 가서 지하 오십미터의 굴을 파”면 “열평짜리 완충지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우리’가 그 속에서 죽더라도 “이 강산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깊은 땅

20 신동엽, 〈그 입술에 파인 그늘〉, 국립극장 공연, 1966년 2월 26~27일.

속에” ‘우리’를 심자고 강하게 촉구한다. ‘여’는 “지하 백 미터 깊이에 우리의 씨를 묻어두”자면서 ‘남’과 자신의 존재를 씨앗에 비유하고 있다. ‘남’과 ‘여’가 전쟁을 피해 만나는 곳이 “중간지대”이고 자신들(씨앗)이 심겨지는 장소를 “완충지대”라고 표현한 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극에서의 “완충지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을 하고 있는, 신동엽의 다른 시 작품들(「새로 열리는 땅」, 「완충지대」, 「주린 땅의 지도(指導) 원리」, 「깍뎌기는 가라」,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과 마찬가지로, ‘남’과 ‘여’가 유일한 피신처로 여기는 “동굴”이 바로 비무장지대를 암시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깍뎌기끼리의 목살잡이”와 “난장판”은 곧 흘러가기 때문에 땅속 깊이 “우리의 씨”를 묻어두고 기다린다는 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는 유토피아의 도래를 염원한다는 의미이다. 이 시극에서도 구체적 유토피아가 작동하는 삼항, 즉 ② “완충지대”라는 공간적 개념과 ① 그곳에 “우리의 씨”를 묻어두는 주체의 실천적 행위, 그리고 ③ 땅속 깊이에서 “씨”의 존재로 전쟁이 흘러가기를 기다린다는 시간적 개념이 동시에 발견된다.

신동엽 문학에서 ‘씨앗’이 심겨질 공간인 ‘중립지대’의 최초 원형은 시 「예외 또는 말세」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하나의 예외다/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것도/ 하나의 거짓말이다/ 나는 그림자이다/ 나를 남겨놓고 시간도 머물러/ 머물러 물러갔고/
공간도 도사려 아득히 도망쳐/ 버리었다/ 나의 둘레는 진공(眞空)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와 함께/ 또 아무도 나를 살리지도 못/
하리라

-「예외 또는 말세」 전문²¹

21 신동엽, 「예외 또는 말세」, 1953년 12월 7일 미간 시편.

「예외 또는 말세」는 신동엽이 한국전쟁 경험 직후에 쓴 시로 미발표 작품이다. 전쟁 이후에 죽음을 피해 살아남은 ‘나’는 “하나의 예외”로 나타난다. 전쟁 상황에서 모든 생명은 죽음이 기본적인 상태이기에 생존은 불가능한 예외이자 “하나의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나’는 실체에서 떨어져 나온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경험된다. 전쟁의 폐허 속 “시간”과 “공간”이 감각되지 않는 무화 상태에서 ‘나’는 스스로의 실존을 가늠할 수 없는 “진공(眞空)”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다. 블로흐는 <없음>을 설명하면서 “모든 현존재의 시작을 위한 출발은 궁극적으로 아직 중개되지 않은 어둠 내지 지금의 (혹은 방금) 충분한 순간의 어둠 속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굴주림과 가난을 통해 계속 전달되는 것은 <공허함에서 비롯한 공포(horror vacui)>로서의 텅 빈 상태”이며 이는 “존재의 직접적 사실의 출발에 해당하는 이른바 영(零)의 시점으로 명명될 수 있다. <공허함에서 비롯한 공포>는 가장 강력한 실현의 동인이요, 사실을 정착하게 하는 동인이다.”²² <없음>은 ‘지금의 충분한 순간의 어둠’을 발견하게 하고 이는 유토피아적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블로흐는 이 어둠을 ‘시원’과 ‘합류’로 규정하며 “‘시원’은 지금의 어두움이라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현실적인 것이 솟아나고, ‘합류’는 객체적인 저변 근거의 개방성으로서 그곳을 향하여 희망이 잇대어 있다.”고 주장한다.²³ 다시 말해 신동엽의 경우, 한국 전쟁이라는 폐허와 같은 현실에 대한 자각(‘어둠’을 자각하는 것)은 ‘아직-아닌 존재의 존재론’에 이르기 위한 <없음>의 단계에 해당한다. <없음>이 당장의 어둠을 벗어나려는 근접 목표(‘진공’)와 관계된다면 <아직 없음>은 유토피아의 궁극적인 완료를 의미하는 원격 목표와 연관

22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2004b), 632쪽.

23 김진, 「블로흐의 희망 철학과 유토피아론」, 차인석·김재기·백금서·김영숙·김창호·안현수·김진·이상훈·김형철·이한구·민경국·이인탁·박정순·황경식, 『사회철학대계 2』(서울: 민음사, 1993), 179~181쪽.

된 것이다.

‘나’는 진공에 머무르기에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존재 상태에 처해 있다. 그것은 새로운 무언가가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공간이기도 하다. ‘나’는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존재의 출발 상태인 〈없음〉에 놓여 있다.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고 “또 아무도 나를 살리지도 못/ 하”는 상황은 마치 씨앗이 스스로의 존재를 깨트려 발아하기 이전의 상태, 즉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지 않은 실존적 차원에서의 중립의 상태와 유사하다. 「예외 또는 말세」에 나타난 씨앗의 공간인 “진공(眞空)”의 모티프는 이후 신동엽 문학에서 ‘중립’의 상상력으로 변주된다. 신동엽에게 ‘중립’은 유토피아적 장소/공간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를 넘어서 유토피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시간적 의미를 포함한 확장성을 가진다.”²⁴ 여기서 「예외 또는 말세」의 ‘진공’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다소 추상적인 비유라고 한다면, 4·19 이후의 시편에는 비무장지대의 ‘중립지대’로 전유되면서 구체성을 획득하게 된다.²⁵ 즉 ‘아직-아닌 존재의 존재론’의 관점에서 볼 때 〈없음〉에서 〈아직 없음〉의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동엽 문학이 1950년대 추상적 유토피아에서 1960년대 구체적 유토피아로의 지향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24 차성환, 「신동엽과 함석헌의 시 비교 연구: 씨앗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8(2022), 176~178쪽.

25 김희정은 신동엽의 4·19혁명 체험이 동학농민운동과 3·1운동, 4·19로 이어지는 시적 실천의 새로운 좌표를 창출했으며 4·19혁명 이후 민중 주체에 의한 역사적 혁명의 구체적인 전망이 제시되는데 그 핵심에는 신동엽이 상상하는 유토피아를 틀 짓는 핵심 원리인 ‘중립’이 놓여 있다는 중요한 논의를 보여준다. 김희정, 「신동엽의 새로운 혁명, ‘중립」, 『국제어문』 63(2014), 73~102쪽.

IV. ‘낮꿈’으로서의 시 쓰기: 중립화통일론

신동엽 문학에 나타난 씨앗의 상상력은 블로흐가 말한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에 준한다. 시극 「그 입술에 파인 그늘」에서 통일 조국이라는 구체적 유토피아의 도래를 기다리는, 심겨진 씨앗의 존재(‘남’과 ‘여’)는 현재 생명도 죽음도 아닌(‘아직 아닌-존재’) 상태이지만 바로 그 중립의 상태가 바로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잠재태인 것이다. 이는 한국 전쟁 이후 분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신동엽만의 문학적 응전이라고 볼 수 있다. 신동엽이 분단 극복의 이상향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스칸디나비아라던가 뭐라구 하는 고장에서는 아름다운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진 아저씨가 꽃리본 단 딸아이의 손 이끌고 백화점 거리 찻술 사러 나오신다. 탄광 퇴근하는 광부들의 작업복 뒷주머니마다엔 기름 묻은 책 하이데거 러셀 헤밍웨이 장자(莊子) 휴가여행 떠나는 국무총리 서울역 삼등대합실 매표구 앞을 피약별 흠쓰며 줄지어 서 있을 때 그걸 본 서울역장 기쁘시겠소 라는 인사 한마디 남길 뿐 평화스러이 자기 사무실 문 열고 들어가더란다. 남해에서 북강까지 넘실대는 물결 동해에서 서해까지 팔랑대는 꽃밭 땅에서 하늘로 치솟는 무지갯빛 분수 이름은 잊었지만 뭐라군가 불리우는 그 중립국에선 하나에서 백까지가 다 대학 나온 농민들 트럭을 두 대씩이나 가지고 대리석 별장에서 산다지만 대통령 이름은 잘 몰라도 새 이름 꽃 이름 지휘자 이름 극작가 이름은 훤히더란다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知性)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 억만금을 준대도 싫었다 자기네 포도밭은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기지도 탱크기지도 들어올 수 없소 끝끝내 사나이나라 배짱 지킨 국민들, 반도의 달밤 무너진 성터 가의 입맞춤이며 푸짐한 타작 소리 춤 사색

(思索)뿐 하늘로 가는 길가엔 황토빛 노을 물든 석양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신사가 자전거 꿈무늬에 막걸리병을 싣고 삼십리 시골길 시인의 집을 놀러 가더라.

-「산문시(散文詩) 1」 전문²⁶

신동엽은 「산문시(散文詩) 1」에서 “애당초 어느 쪽 패거리에도 총 쏘는 야만엔 가담치 않기로 작정한 그 지성(知性) 그래서 어린이들은 사람 죽이는 시늉을 아니하고도 아름다운 놀이 꽃동산처럼 풍요로운 나라”인 “스칸디나비아”의 “중립국”을 이상향으로 제시한다.²⁷ 자본과 권력이 힘을 쓰지 못하고 “사람 상처 내는 미사일기지도 탱크기지도”를 거부하는 나라는 신동엽이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상적인 국가 모델인 것이다. “민주사회주의체제의 스칸디나비아는 신동엽이 열망했던 무정부주의 유토피아의 현실적 변안일 가능성”²⁸이 있는 것이다. 되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유토피아의 퇴행적(추상적) 방식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유토피아에 가까운 국가 모델을 찾고 상상하는 것은 구체적 유토피아의 일이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26 신동엽, 「산문시 1」, 《월간문학》, 1968년 11월호.

27 신동엽의 「산문시 1」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스웨덴 국빈방문 때 의회 연설에서 직접 낭독한 시이기도 하다. 1968년에 스칸디나비아의 중립국이 신동엽 시인에게 한반도에서 남북이 화합하는 평화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면 먼 훗날 2019년 한국의 대통령은 초청국 스웨덴에서 그 오래전 일에 대한 답례로 평화공동체에 대한 영감을 거꾸로 되 돌려주는 진풍경이 펼쳐진 것이다. 신동엽이 말한 ‘좋은 언어’(『좋은 언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8 박대현, 「『민주사회주의』의 유령과 중립통일론의 정치학」, 고봉준·김윤태·김지윤·김형수·김희정·박대현·이대성·조강석·최현식·하상일·한상철, 『다시 새로워지는 신동엽』(서울: 삶창, 2020), 309쪽.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에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십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데./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 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폭 십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일백팔십도 뒤로 돌데.// 하더니, 눈 깜박할 사이/ 물방개처럼/ 한 때는 서귀포 밖/ 한 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 내던져버리데.// 꽃 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모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이네 마을 돌이네 마을마다/ 높이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부끼데.//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전문²⁹

이 시는 한반도에 평화로운 나라를 새로 일으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작품으로 비무장지대를 지칭하는 “완충지대”, “중립지대”, “평화지대”라는 시어가 동시에 사용된다.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십리의/ 완충지대”가 있고 그곳에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이 있다.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부리 마주 겨누고 있”다는 표현에서 보듯이 그곳은 바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비무장지대를 가리키는 것이다. 꿈속에서 바라본 비무장지대는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 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인간과 동물이 함께 어울려 공존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 장소는 갑자기 “요술”을 부리듯 “팽

29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창작과비평》, 1968년 여름호.

창”하기 시작하더니 반도 전체로 확장된다. 비무장지대에 서로 대치하고 있던 “탱크들”은 180도로 방향을 돌려 남쪽으로는 최남단인 서귀포까지, 북쪽으로는 최북단인 두만강까지 가서 반도 바깥의 하늘을 향해 “총칼들”을 내던져 버린다. 전쟁의 무기를 대표하는 “탱크들”을 “물방개”라는 딱정벌레로 비유하면서 그러한 무기들이 이제는 한반도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전쟁이 가져다준 살육과 공포의 시대가 끝이 나고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가 되어 우리가 사는 땅은 “꽃 피는 반도”, “사랑 뜨는 반도”가 된 것이다. 좌우가, 남북이 대립하지 않고 “중립”을 이루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신동엽은 전쟁의 무기들인 “모든 쇠붙이”가 반도 바깥으로 추방되고 마을마다 “황금이삭 타작하는” 태평성대가 열리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재미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화자는 이것이 꿈의 내용이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한다.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고 비무장지대가 “요술”처럼 팽창하는 등 남북의 대립과 긴장이 일순간에 허물어지고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허망하게 우스운 꿈”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그토록 희구했던 통일된 조국의 이상향을 꿈꾸는 것은 잠시나마 행복한 일일 수 있지만 잠에서 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화자는 그러한 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블로흐는 주체가 현실에 억압되어 있던 무의식이 소망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상연된다는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밤꿈’)과 구별해서 ‘낮꿈’이란 개념을 설명한다. 프로이트의 ‘밤꿈’은 쾌락원칙에 지배된 채 현실로 수렴되지 않는다면 ‘낮꿈’은 유토피아를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는 실천적인 의지와 행위를 동반한다.³⁰

30 “밤꿈은 아편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퇴행적인 데 비해, 낮꿈은 새로운 계획에 대한 광기로서 진보적이라는 것이다. … 따라서 낮꿈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꿈들’이라는 것이다. … 낮꿈은 인간과 관련된 미래의 무엇을 선취하게 하고, 이를 인간의 의식 속에 증폭시킨다. … 즉 낮꿈으로서 유토피아는 개방되어 있으며, 무엇인가를 창안하거나 선취하려고 한다는 것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에서 시적 화자는 꿈속에서 통일된 조국의 풍경을 환상적으로 경험하지만 잠에서 깬 후, 그것에 대해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허망하게 우스운 꿈”이라며 불쾌에 가까운 감정을 토로한다. 이 시에서의 꿈은 블로흐가 말한 현실을 향해 깨어 있는 꿈으로서의 ‘낮꿈’에 해당한다. 꿈속에서 본 유토피아의 이상향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서 깨어난 이후에 그렇지 못한 현실을 먼저 직시하는 것이다.

신동엽이 4·19혁명 이전에 쓴 「향(香)아」와 같이 과거의 충일했던 ‘동일성’의 장소로서 고향을 그리고 그곳에 안주하는 것이 ‘밤꿈’에 해당한다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은 그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이 가진 유토피아적 열정을 지금의 현실과 연결해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낮꿈’에 준하는 것이다. “유토피아적 상상의 꿈과 환상을 리비도적 경제와 공모하는 것(근본적으로 보수적 경향들을 보유하는 경제)은 반혁명성이 영구적으로 존재하도록 보장한다. 유토피아는 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꿈의 종말에서 시작된다.”³¹ 퇴행적이고 자기함몰적인 이상향에 대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와 실천이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신동엽은 실제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 통일의 모델로 중립화통일론을 지지했던 것으로 보인다.³²

다. 유토피아는 더 나은 것을 소유하려는 욕망 내지는 더 나은 것을 알려는 욕망으로서 이러한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의 전진을 부추긴다.” 손철성, 앞의 책(2003), 49~55쪽.

31 에드리언 존스톤, 「미래로부터 오다」, 슬라보예 지젝·가라타니 고진·줄리엣 플라우어 맥캐넬·다니엘 버저론·에드리언 존스톤·조지프 젠킨스·펠릭스 엔슬린·라이언 앤소니 해치(저), 강수영(역) 『유토피아』(고양: 인간사랑, 2023), 215쪽.

32 박지영은 1950년대 전후 한국의 진보적 사상가들이 주장했던 한반도 중립화통일론을 거론하면서 당대에는 이러한 논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신동엽의 정치의식과 신념을 통해 그의 시에 ‘중립지대’라는 보편적 의미의 유토피아로 등장했다고 본다. 박지영, 「유기체적 세계관과 유토피아의식」, 구중서·강형철(편), 『민족시인 신동엽』(서울: 소명출판, 1999), 677~678쪽 참조.

... 제주에서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하면 두시간도 안 돼 평양 압록까지 합창이 변질 것이다. 날짜를 택해 판문점이나 임진강 완충지대에 그리운 사람들끼리 모여 아리랑을 합창해보자고 제의하는 사람이 남북을 통해 아직 없다는 것은 쓸쓸한 일이다.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원하는 비정치적 문화단체나 개인들로 구성된 남북문화교류준비위원회의 예비위원을 조성하기 위해 자유로운 분위기를 중립지대나 기타 비정치적 지역에 마련하도록 우리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줄 안다. 북한정부가나 남한정부는 순수한 문화인(문학인 ·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교류를 위해 제반 편의를 제공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때다. 무서워한다는 건 정치 브로커들의 신경과민이거나 수관노(守官奴)들의 협심 증세이다. 동족인의 얼굴이나 문화를 무서워한다면 영세(永世)분단을 원하고 있는 소치다. ...

-산문 「전통 정신 속으로 결속하라-남북의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위한 준비회의를 제의하며」 부분³³

산문 「전통 정신 속으로 결속하라」는 발표되지 않은 유고이지만 신동엽이 실제 중립화통일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게 한다. “완충지대”와 “중립지대”와 같은 표현은 앞에서 살펴본 분단 극복의 상상력을 보이는 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신동엽이 작품 속 유토피아에 대한 추구가 단순히 문학적 수사학으로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분단 극복의 이상향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그의 역사의식 속에서 다음 단계에 올 혁명은 남북의 통일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33 신동엽, 「전통 정신 속으로 결속하라: 남북의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위한 준비회의를 제의하며」, 미발표 유고.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레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전문³⁴

… 1894년 3월/ 우리는/ 우리의 가슴 처음/ 만져보고, 그 힘에/ 놀라,/ 몸뚱이, 알맹이째 발라,/ 내던졌느니라./ 많은 피 흘렸느니라.// 1919년 3월/ 우리는/ 우리 가슴 성장하고 있음 증명하기 위하여/ 팔을 걷고, 얼굴/ 닦아보았느니라./ 덜 많은 피 흘렸느니라.// 1960년 4월/ 우리는/ 우리 넘치는 가슴덩이 흔들어/ 우리의 역사발/ 쟁취했느니라./ 적은 피 보았느니라./ 왜였을까, 그리고 놓쳤느니라.// 그러나/ 이제 오리라./ 같고 다름은 우리들의/ 푸담한 슬기와 자비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세상 쟁취해서/ 반도 하늘 높이 나부낄 평화./ 낙지발에 빼앗김 없이,// 우리 사랑발에/ 우리 두레마을 심을, 아/ 찬란한 혁명의 날은/ 오리라,// 겨울 속에서/ 봄이 싹트듯/ 우리 마음속에서/ 연정이 잉태되듯/ 조국의 가슴마다에서,/ 혁명, 분수 뿔을 날은/ 오리라. …

-「금강」 후화(後話) 2장 부분³⁵

「껍데기는 가라」는 1964년 12월 동인지 『시단』 제6집에 최초 발표 후에 수정·개작을 거쳐 1967년 『52인시집』에 수록되었다. 과거 한반도에 일어난 사건인 “사월”, 즉 4·19혁명이 품은 “알맹이”와 동학농민혁명의 “아우성”

34 신동엽, 「껍데기는 가라」, 백철(편), 『52인시집』(서울: 신구문화사, 1967).

35 신동엽, 「금강」, 김종문·홍윤숙·신동엽, 『장시 시극 서사시』(서울: 을유문화사, 1967).

이 다시 살아남아서 “이곳”, 비무장지대를 연상시키는 “중립(中立)의 초레청”에 다시 현현할 것을 염원하고 있다. 신동엽은 시 「사월은 갈아엎는 달」에서도 “곰나루서 피 터진 동학의 함성./ 광화문서 목 터진 사월의 승리”를 기억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혁명을 가로막고 봉쇄시켰던 “껍데기”를 제거해야 한다. “껍데기”에 불과한 그 어떤 허위와 장식도 없이 알몸 그대로 “아사달 아사녀”가 전통 혼례를 치르는 장면을 통해 남북의 통일이라는 다가올 혁명의 날을 제시한다. 시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과 같이, 참혹한 전쟁의 도구인 “쇠붙이”가 한반도에서 밀려나 사라지고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은 평화의 대지를 상상하는 것이다.

V.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꿈

신동엽은 장편서사시 「금강」에서도 이와 유사한 역사의식을 드러낸다. 위 인용부분은 「금강」의 후화(後話) 2장으로, 전체 26장 4,800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벌어진 혁명의 역사인 1894년 3월의 동학 농민혁명과 1919년 3월의 3·1만세운동, 1960년 4월의 4·19혁명을 언급하면서 다음에 위치할 혁명은 “반도 하늘 높이 나부낄 평화”라면서 조국 통일의 “찬란한 혁명의 날”을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고 노래한다. 그리고 그 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쟁취”될 것이다. 1894년에는 많은 피를 흘렸지만 1919년, 1960년 차례대로 조금씩 피를 덜 흘리는 혁명을 해냈으며 다음 조국통일의 혁명은 아무도 피를 흘리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언이다. 앞서 이루어진 혁명은 놀라운 것이지만 우리는 그 혁명을 지키지 못하고 놓쳤으며 그것이 미완의 혁명이었음을 이야기한다. 혁명을 방해하고 훼방놓는 “낙지발”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낙지발”은 혁명의 본질인 “알맹

이”에 대립하는 ‘껍데기’와 같이 부정적인 상징으로 사용된다.³⁶ 그러나 혁명은 반복된다. 더 나은 실패를 반복함으로써 과거의 실패한 혁명은 다음에 올 혁명을 위한 토대가 된다. 장편서사시 「금강」은 결국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대서사시 다음에 새로 갈아엮은 토양 위에 세워질 새로운 나라, “두레마을”이라는 통일 조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신동엽이 「금강」에서 주목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문학적 사유는 4·19혁명을 계기로 한 한국사회의 민중의 위엄에 대한 발견과 역사 변혁의 주체로서 이후 민중이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값진 문제의식의 소산”³⁷인 것이다.

신동엽은 평화통일이라는 혁명이 이미 가까이에 온 것처럼 확신한다. 혁명은 기정사실화된 하나의 사건이다. 혁명은 이미 선취한 것으로 경험된다. “혁명은 말하자면 혁명 자체의 존재론적 증거, 혁명 자체의 진리의 직접적 표시”이기에, “혁명은 미래 세대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우리가 견뎌야 하는 현재의 고난으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미래의 행복과 자유의 그림자가 이미 드리워진 곤경으로 경험되는 것이다.”³⁸ 블로흐의 구체적 유토피아

36 김응교는 ‘낙지발’을 ‘껍데기’, ‘흙반죽’과 함께 부정적인 문제소로 분류하면서 “초국가주의(ultranationalism)에 의해 조종되는 적극적인 침략적 욕망을 상징한다”고 본다. 이 ‘낙지발’이 “내부적인 적일 때는 부패한 정권이고, 외부의 적일 때는 제국주의를 지시”한다. 특히 장시 「금강」에 나타난 ‘낙지발’의 경우에는 “주변인을 착취하는 총체적인 부패사회의 조직적 구도”로 분석했다. 김응교, 「시집 『아사녀』와 ‘낙지발’: 시인 신동엽 연구(5)」, 『민족문화논총』 43(2009), 352~353쪽.

37 고명철, 「혁명, 수행의 언어들: 해방과 민주주의 상상력」, 『한민족문화학회』 71(2020), 189쪽.

38 슬라보예 지젝(지), 정영목(역), 『레닌의 유산: 진리로 나아갈 권리』(파주: 생각의힘, 2017), 235쪽. 지젝은 다른 책에서 혁명의 실패한 시도들은 오직 반복을 통해서만, 미래완료 형태로만 완성될 것이라면서 벤야민의 「테제들」에 나오는 ‘과거로의 단숨의 도약’을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라캉의 공식으로 읽어 낸다. “혁명이 ‘단숨의 도약’을 완수하는 것은 과거의 전통 속에서 지지물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혁명’ 속에서 자신을 반복하는 과거가 이미 그 자체로 열린 미래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슬라보예 지젝(지), 이수련(역),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서울: 새물결, 2013), 229쪽.

에 내재한 시간관은 미래로 향하는 관점에서 “...미래-현재-미래...”라는 원환적 시간이 구성된다. 미래적 대상은 현재에 선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현재로 다가오는 것이고, 다시 실천을 통해 미래적 대상을 실현하는 것은 현재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며, 이렇게 실현된 미래는 또 다른 현재로서 위치하게 된다.”³⁹ 유토피아적 시간에 관한 이 전도된 관점은 신동엽 문학이 수행하고 있는 혁명적 과업을 더 급진적으로 읽을 수 있게 한다. 한반도에서 벌어진 동학농민혁명, 3·1만세운동, 4·19혁명으로 수놓은 혁명의 역사는 바로 평화통일이라는 ‘미래로부터 오는 혁명’이 스스로를 반복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논리이다.

신동엽은 1960년 4·19혁명이라는 결정적 경험 이후에 고양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고 1950년대에 보이던 추상적 유토피아에서 벗어나 구체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단계에 이른다. 즉, 신동엽에게 중립화통일론은 유토피아적 사유에 기반한 ‘의식된 희망’(구체적 유토피아)의 최종 종착지이자 역사의 마지막 혁명이었던 것이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만세운동, 4·19혁명이 미완으로 끝난 혁명의 역사라고 한다면 다음에 도래해야 할 것은 남북이 피를 흘리지 않는 ‘중립화통일’이다. “구체적인 꿈을 지닌 유토피아는 현재의 존재를 넘어서게 하며, 사유된 것과 꿈꾸어진 것을 실현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그것은 ‘더 이상-이루어지지-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직-이루어지지-않은 것(das Noch-Nicht-Gewordene)’이다.”⁴⁰ 그에게 남북의 평화 통일이란 ‘더 이상-이루어지지-않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루어지지-않은 것’이다.

39 이재광,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에 관한 연구: 《희망의 원리》 2부 〈정초적 논의: 선취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10), 60쪽.

40 하동윤,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에 나타난 구체적 유토피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8), 16쪽.

신동엽에게 있어서 구체적 유토피아는 결국 ‘자아와 세계의 동일성’(김준오)을 향한 참여시의 모험이다. “유토피아의 전체성은 바로 그 주변에 맴돌고 있는 동일성의 고향, 말하자면 그 자유를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인간이 세계에 대해, 그리고 세계가 인간에 대해 어떤 낯선 존재로서 관계 맺지는 않을 것이다.”⁴¹ 혁명은 기존의 조건과 체제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 이후를 상상하는 것이다. 분단 체제를 넘어서 남과 북이 같이 상상하는 통일 조국의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신동엽의 문학은 통일 조국의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한다. 평화통일에 대한 꿈은 결코 지난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을 낡은 것으로 만들고 유토피아적 사유를 ‘전체주의’라는 경고로 만들며 자본으로 환산시키는 이 시대를 의심해야 한다.⁴² 남북이 함께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나라를 상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신동엽의 문학은 1960년대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동엽 문학이 가진 분단 극복의 상상력은 조국의 중립화 평화 통일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향한 희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동엽의 언어로 말한다면, 그 출발은 우리 각자의 ‘좋은 언어’와 ‘눈동자’로 시작해야 한다.⁴³

끝으로 이 글은 신동엽이 남북으로 분단된 조국에서 그의 문학을 꽃피웠던 것처럼, 블로흐 또한 독일이 동서로 분단된 상황에서 『희망의 원리』에 기

41 에른스트 블로흐, 앞의 책(2004a), 428쪽.

42 지젝은 신자유민주주의가 다문화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체제 내에서의 급진적인 행동과 진보적 사유를 ‘전체주의’라는 경고로 막을 때 유토피아에 대한 충동은 사라지고 세계는 ‘실용’이라는 합리적 가치에 의해서만 유지되게 된다고 지적한다. 슬라보예 지젝(저), 한보희(역), 『전체주의가 어쨌다구?』(서울: 새물결, 2008).

43 “때는 와요./ 우리들이 조용히 눈으로만/ 이야기할 때// 허지만/ 그때까진/ 좋은 언어로 이 세상을/ 채워야 해요”(『좋은 언어』, 《사상계》, 1970년 4월호), “금가루 흩뿌리는/ 새 아침은/ 우리들의 대화/ 우리의 눈빛 속에서/ 열렸다.”(『새해 새 아침은』) 신동엽은 ‘좋은 언어’와 ‘눈동자’를 혁명의 도래를 위해 민중 개인이 간직해야 할 본질적인 속성(‘알맹이’)으로 여겼다. 신동엽 문학에서 ‘눈동자’와 ‘입’은 우리 민중이 ‘그날’이라는 유토피아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가꾸고 지켜야 할 중요한 기표로 나타난다.

반한 만년의 철학을 감행했다는 사실에서 착안했음을 밝힌다. 신동엽과 블로흐가 분단된 조국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유토피아에 대한 사유에 있어서 일정 부분 공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작은 위안을 삼는다. 블로흐의 관점으로 신동엽을 읽음으로써 그의 문학적 지평을 조금 더 넓게 조망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참고문헌

1. 논저

- 고명철, 「혁명, 수행의 언어들: 해방과 민주주의 상상력」, 『한민족문화학회』 71, 2020.
- 고봉준, 「1960년대 정신사와 신생의 토포스: 4.19혁명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전후 신동엽 시의 변화양상」, 『한국문학논총』 84, 2020.
- 김경복, 「신동엽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64, 2013.
- 김응교, 「시집 『아사녀』와 ‘낙지발’: 시인 신동엽 연구(5)」, 『민족문화논총』 43, 2009.
- 김진, 「블로흐의 희망 철학과 유토피아론」, 차인석·김재기·백금서·김영숙·김창호·안현수·김진·이상훈·김형철·이한구·민경국·이인택·박정순·황경식, 『사회철학대계 2』, 서울: 민음사, 1993.
- 김희정, 「신동엽의 새로운 혁명, ‘중립」, 『국제어문』 63, 2014.
- 김희정, 「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진리 절차 연구: 알랭 바디우의 메타정치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박대현, 「‘민주사회주의’의 유령과 중립통일론의 정치학」, 고봉준·김윤태·김지윤·김형수·김희정·박대현·이대성·조강석·최현식·하상일·한상철, 『다시 새로워지는 신동엽』, 서울: 삶창, 2020.
- 박지영, 「유기체적 세계관과 유토피아의식」, 구중서·강형철(편), 『민족시인 신동엽』, 서울: 소명출판, 1999.
- 손철성, 『유토피아, 희망의 원리』,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3.
- 슬라보예 지젝(저), 한보희(역), 『전체주의가 어쨌다구?』, 서울: 새물결, 2008.
- 슬라보예 지젝(저), 이수련(역), 『이데올로기의 송고한 대상』, 서울: 새물결, 2013.
- 슬라보예 지젝(저), 정영목(역), 『레닌의 유산: 진리로 나아갈 권리』, 파주: 생각의힘, 2017.

- 신동엽, 「껍테기는 가라」, 백철(편), 『52인시집』, 서울: 신구문화사, 1967.
- 신동엽, 「금강」, 김종문·홍윤숙·신동엽, 『장시 시극 서사시』, 서울: 을유문화사, 1967.
- 신동엽, 「둥구나무」, 『신동엽전집』,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5.
- 신동엽(저), 강형철·김윤택(역), 『신동엽 시전집』, 창비, 2013.
- 신동엽(저), 강형철·김윤택(역), 『신동엽 산문전집』, 창비, 2019.

에드리언 존스턴, 「미래로부터 오다」, 슬라보예 지젝·가라타니 고진·줄리엣 플라우어 맥 캐넬·다니엘 버저론·에드리언 존스턴·조지프 젠킨스·펠릭스 엔슬린·라이언 앤소니 해치(저), 강수영(역), 『유토피아』, 고양: 인간사랑, 2023.

에른스트 블로흐(저), 박설호(역), 『희망의 원리 1』, 서울: 열린책들, 2004a.

에른스트 블로흐(저), 박설호(역), 『희망의 원리 2』, 서울: 열린책들, 2004b.

윤지관, 『민족현실과 문학비평』, 서울: 실천문학사, 1990.

이대성, 「신동엽의 〈석가탑〉과 현진건의 『무영탑』 비교 연구: ‘비어 있음’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비교문학』 77, 2019.

이재광,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에 관한 연구:《희망의 원리》 2부 〈정초적 논의: 선취하는 의식〉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파주: 한길사, 2009.

차성환, 「신동엽과 함석헌의 시 비교 연구: 씨앗의 상상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88, 2022.

하동윤, 「에른스트 블로흐의 『희망의 원리』에 나타난 구체적 유토피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Ruth, Levitas, *The Concept of Utopia*, New York: Philip Allan, 1990.

2. 기타

신동엽, 「산문시 1」, 《월간문학》, 1968년 11월호.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세계일보》, 1959년 11월 2일.

신동엽,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창작과비평》, 1968년 여름호.

신동엽, 「시인정신론」, 《자유문학》, 1961년 2월호.

신동엽, 「예외 또는 말세」, 1953년 12월 7일 미간 시편.

신동엽, 「전통 정신 속으로 결속하라: 남북의 자유로운 문화교류를 위한 준비회의를 제의하며」, 미발표 유고.

신동엽, 「좋은 언어」, 《사상계》, 1970년 4월호.

신동엽, 「힘이 있거든 그리로 가세요」, 《서울일일신문》, 1961년 4월 11일.

국문초록

신동엽은 1960년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통일 조국에 대한 ‘유토피아적 지향’을 드러낸다. 신동엽은 1950년대에 유토피아적 열망으로 충만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역사의식과 이론적 토대가 부재했다. 그러나 1960년대 동학과 아나키즘의 사상적 전유를 통해 자신만의 역사관과 ‘전경인’ 개념을 획득했으며 결정적으로 중립화통일이라는 구체적 유토피아의 전망을 확보한다.

블로흐는 막연한 열망으로서의 ‘추상적 유토피아’가 가진 퇴행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품은 유토피아적 열망을 긍정하면서 ‘구체적 유토피아’로 나아갈 것을 요청한다. 신동엽에게는 그 ‘구체적 유토피아’를 가능하게 하는 최초의 땅이 ‘정전지구’로 나타난다.

신동엽은 ‘씨앗’이란 비유와 함께 씨앗을 심고 밭을 일구는 ‘전경인’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신동엽의 역사관에서 부정한 현실인 ‘차수성’의 땅에 누워서 유토피아로서의 ‘귀수성’을 꿈꾸는 ‘씨앗’은 블로흐가 말한 ‘아직 아닌-존재의 존재론(Ontologie des Noch-Seins)’의 지위를 갖는다.

그의 산문 「시인정신론」에서 ‘전경인’과 ‘씨앗’은 유토피아를 향한 혁명의 출발점인 ‘아직-아닌 존재의 존재론’을 지향한다. 이 ‘씨앗’이 심겨질 장소는 바로 ‘중립 지대’(비무장지대)이다.

신동엽은 1960년 4·19혁명이라는 결정적 경험 이후에 고양된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고 1950년대에 보이던 추상적 유토피아와 결별하고 구체적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즉, 신동엽에게 중립화통일은 유토피아적 사유에 기반한 ‘의식된 희망’(구체적 유토피아)의 최종 종착지이자 역사의 마지막 혁명이다.

투고일 2024. 6. 20.

심사일 2024. 8. 6.

게재 확정일 2024. 8. 19.

주제어(keywords) 신동엽(Shin Dong-Yeop), 희망의 원리(The Principle of Hope), 구체적 유토피아(Concrete Utopia),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 분단 극복(overcoming the division), 중립화통일론(neutralized unification)

Abstract

The Imagination of Overcoming Division in Shin Dong-yeop's Work

Cha, Shunghwan

In the 1960s, when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Shin Dong-yeop revealed his “Utopian orientation” for a unified homeland. While Shin was full of utopian aspirations in the 1950s, he lacked the historical consciousness and theoretical basis to plan them realistically. However, through the ideological appropriation of dynamics and anarchism in the 1960s, he developed his own historic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the “foreground man,” and importantly, he secured a vision of a concrete utopia centered on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Bloch asked for the removal of the degenerative elements of the “abstract utopia”—a vague aspiration—and advocated for moving toward a “concrete utopia” while affirming its utopian aspirations. For Shin Dong-yeop, the first land that enables a “concrete utopia” appears as the “static electrical zone.”

Along with the metaphor of a “seed,” Shin Dong-yeop presents the concept of “foreigners” who plant seeds and cultivate fields. The “seed,” which lies on the ground of the “next generation,”—a negative reality in Shin Dong-yeop’s view of history—dreams of “heritance” as a utopia, has the status of Bloch’s “*Ontologie des Noch-Seins*.”

In his prose work “The Poet Spirit,” “the foreground” and “seed” aim for “the ontology of existence that is not yet-to-be,” the starting point of the revolution toward utopia. The place where this “seed” will be planted is the “neutral zone” (unarmed zone).

After the decisive experience of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Shin Dong-yeop developed an elevated historical consciousness, breaking away from his abstract utopia of the 1950s and moving toward the pursuit of a concrete utopia. In other words, for Shin Dong-yeop, neutralization and unification are the final destination of “conscious hope” (concrete utopia) based on utopian thinking, and the final revolution of history.